

치과질환



□ 치주질환

1.원 인

치주질환의 원인은 치아에 이끼처럼 연하게 단단히 부착된 세균과, 그 세균의 대사 산물인 독성물질로 이루어진 치면세균막(프라그 혹은 치태)이다. 세균 부산물과 침에 있는 석회화 물질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치석은 치주질환의 발생과 진행에 간접적으로 작용한다.

2.예 방

- 칫솔질 : 치은염 예방의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매일 식후에 칫솔질을 규칙적으로 하면, 치은염의 대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잘못된 방법으로 칫솔질을 하면 오히려 잇몸이 상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칫솔질을 하여야 한다.
- 치면세마(스케일링) : 치아에 일단 치석이 부착되면 칫솔질로는 제거되지 않는다. 따라서 6개월에

1번 정도는 치과를 방문하여 치석을 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3.치 료

- 치근활택술 : 치주낭이 형성되면 치아뿌리에도 치석이 부착되며, 치아뿌리의 표면이 독소에 노출되게 되어 치주병을 악화시킨다. 이를 막기 위해서 치근활택술을 시행하여야 한다. 치근활택술은 뿌리에 부착된 치석을 제거하고, 독소에 노출되어 변성된 치아뿌리의 표면을 깨끗하게 하는 치료이다.
- 치주수술 : 치주병이 더 심해지면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치조골이 파괴되어 치아를 빼야하는 상태에 이른다. 이를 막기 위해 시행하는 최후의 치료방법이 치주수술이다. 치주수술은 심한 치주병이 있는 환자에서 치아와 치조골을 둘러싸고 있는 잇몸을 제거, 치아와 치조골을 노출시킨 상태에서 치석 제거나 치은절제 및 골형성 등을 하는 치료이다.

□ 치아우식증(충치)

1.원 인

치아에 붙어 있는 세균들이 음식물 찌꺼기를 분해할 때 산을 만드는데 이 산에 의해 치아가 녹는 현상을 치아우식증(충치)이라고 한다. 특히, 사탕이나 옛같이 달고 입안에 오래 남아 있는 음식은 세균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서 치아우식증(충치)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

2.예 방

- 단 음식 피하기 : 치아우식증(충치)를 일으키는 주원인인 설탕을 함유한 식품을 먹지 못하게 하거나, 채소나 과일처럼 이를 깨끗이 해주는 음식을 많이 먹는다. 특히 우유, 요구르트, 주스가 들어 있는 우유병을 물고 잠이 들지 않도록 한다.
- 올바른 이닦기 : 치면세균막(프라그)를 제거하여 치아우식증(충치)의 원인이 되는 세균이 번식하

지 못하도록 한다.

- 불소알약을 먹는 법 : 어릴 때부터 치과 의사의 처방에 따라 불소알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면 치아우식증(충치) 많은 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
- 수돗물 불소화 : 수돗물 불소화는 수돗물의 불소 농도를 0.8ppm 정도로 만들어 복용하는 방법으로서 불소를 복용하는 방법 중 가장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효과가 좋고 안전한 방법이다.
- 불소용액으로 양치하는 방법 : 0.05% 불소용액으로 매일 양치하는 방법으로서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다.
- 불소도포법 : 매년 정기적으로 한 두번 치과를 방문하여 고농도의 불소를 치아에 바르는 방법으로서 치아우식증(충치) 예방효과가 높고 어린이들이 치과에 대해 갖기 쉬운 불안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
- 치아홈 메우기(치면열구전색, 실런트) : 이를 아무리 잘 닦아도 치아표면의 깊고 작은 홈에는 솔이 들어가지 않아 이가 썩게 되는데 이 부위를 플라스틱으로 메워 치아우식증(충치)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3. 치료

- 치아우식증의 조기 치료 : 썩은 부분을 제거하고 아말감이나 금 혹은 플라스틱으로 제거한 부위를 원래 형태대로 메워줌으로써 더 이상 치아우식증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치료이다.
- 치근관(신경) 치료 : 충치가 치수에 침범하였을 때 실시하는 치료로, 충치로 인한 고통을 없애기 위하여 신경을 절단하는 치료법이다.
- 치아우식증에 의한 치아상실의 치료 : 치아가 하나 상실되면 상실된 치아를 금이나 금속 혹은 도재(사기)로 의치를 만들어 대체해주어야 한다. 이 때 좌우에 있는 멀쩡한 치아도 깎아서 의치를 부착시켜줄 부분을 만들어 주어야 하므로 치아 하나가 상실되면 좌우의 치아까지 포함하여 세계의 치아를 치료해야 한다.

□ 치아경부 마모증

1. 원인

사용 중인 세치제(치약)의 마모력이 너무 강하거나, 옆으로 문지르는 방법으로 칫솔질을 하거나 하면, 잇몸이 내려가서 치아뿌리가 노출되고 이 부위의 치아 표면이 패여서 치아경부 마모증이 발생된다.

2. 예방

칫솔질법을 회전법이나 치간자극 칫솔질법으로 바꾸도록 하고, 지금 자신이 쓰고 있는 세치제(치약)보다 마모도의 등급이 낮은 세치제(치약)을 사용하도록 한다.

3. 치료

- 치수노출의 치료 : 치아가 패인 상태를 방지하면, 점점 더 패여서 치아가 부러지거나 치아 안에 있는 신경이 노출되어 심한 통증과 함께 신경에도 염증이 생기게 된다. 이 상태로 방지하면, 염증이 골까지 진행되어 이를 뽑아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치수가 노출되었을 때는 치아 안에 있는 신경을 제거하고 다른 물질로 신경이 있던 자리를 채워넣는 신경치료를

하여야 한다.

- 치근우식증의 치료 : 치아가 패인 부위에는 치면세균막(플라그)의 부착은 쉽고, 칫솔질로 제거하기는 어려워 패인 부위를 방지하면, 번식한 세균이 산을 만들어 치아우식증(충치)을 발생시킬 수 있다. 치아우식증(충치)이 일단 발생되면, 치아우식증(충치)이 발생된 부위를 제거하고, 치아 안에 있는 신경을 보호하는 약제를 바른 뒤에 플라스틱으로 메꿔 주도록 한다.

□ 악관절 장애

1.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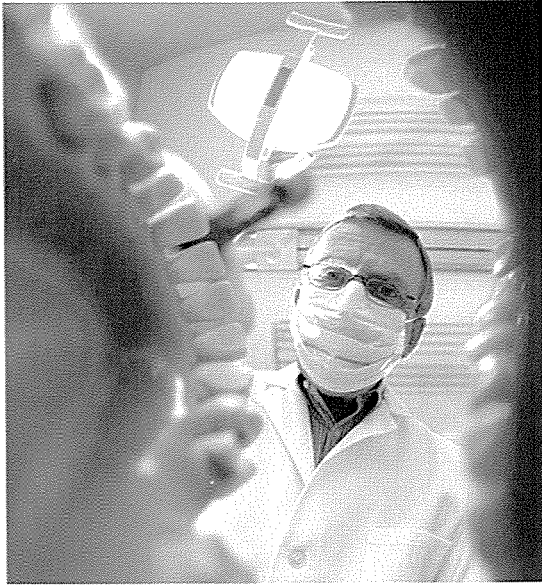
- 신체 요인 : 외상, 교합 부조화, 유전적 소인, 과민증상 등
- 행동 요인 : 이갈이, 이악물기, 나쁜 자세, 물어뜯는 습관 등
- 환경 요인 : 만성 진동, 소음, 식품 첨가물 등
- 정서 요인 : 스트레스, 신경과민 등

2. 증상

- 1기 : 입을 벌리거나 다물 때, 또는 턱을 좌우로 움직일 때 귀 앞에서 소리가 난다. 소리는 매번 나기도 하고, 안 나다가 나기도 한다.
 - 2기 : 입을 벌릴 때 관절원판(디스크)이 걸려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다. 입을 옆으로 틀면서 벌리면 벌어진다.
 - 3기 : 입을 옆으로 틀어도 벌어지지 않는다. 입을 크게 벌렸다가 다물 수 없기도 한다.
 - 4기 : 3기의 상태가 오래 진행되다 보면, 골관절염이 생기기도 한다.
- ※ 이러한 증상은 꼭 순서대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3. 치료

- 교합장치(스플린트) : 악관절과 근육 및 치아를 보호하고, 악관절과 교합을 안정시키도록 고안된 장치이다.
- 악관절 가동술 : 디스크가 빠졌을 때 아래턱을 당겨서 디스크가 가능한 원래 위치로 가도록



하는 방법이다.

- 행동 조절 및 스트레스 관리 : 나쁜 습관을 없애고, 스트레스를 줄이도록 한다.
- 물리치료 : 더운 찜질, 얼음 찜질, 초음파 치료, 경피성신경자극, 운동요법 등을 실시하여 근육을 이완시키고 동통을 조절하는 방법이다.
- 약물요법 : 동통을 완화할 수 있는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이다.

□ 구강암

1.원 인

구강암의 주된 위험요인으로는 흡연과 음주를 들 수 있다. 장기간 흡연할수록 그 위험성이 커지며 금연할 경우 구강암의 위험성이 크게 감소된다. 만성적인 음주, 과도한 음주 또한 구강암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흡연과 음주를 같이 할 경우 그 위험성은 훨씬 더 커진다.

이외 위험요인으로는 바이러스 감염, 면역결핍, 영양 부족, 자외선 노출 등이 알려져 있다. 40대 이상의 연령에서 많이 발생하며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흡연량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증 상

구강암은 초기에 보통 통증이 없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 그 이상을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기적인 구강검진을 통하여 초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림프를 통해 신체의 다른 부위로 전이될 수 있다. 보통 많이 나타나는 증상은 다음과 같다.

- 잘 낫지 않거나 쉽게 피가 나는 구강, 입술의 궤양
- 없어지지 않는 구강의 흰색 또는 적색 반점
- 구강, 목, 혀의 덩어리, 두꺼워짐, 통증
- 음식물을 씹거나 삼키기 어려움
- 목소리의 변화
- 귀의 통증

3.치 료

- 수술 : 종양부위를 제거하는 것으로 구강암 치료에 많이 사용한다. 암세포가 다른 신체 부위로 퍼져나갔을 경우 목의 림프절을 포함한 광범위한 수술이 이루어진다.
- 방사선 치료 : 종양 부위가 작을 경우 수술 대신에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한다. 종양 부위를 줄여 수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수술 전에 방사선 치료를 하며 수술 후에는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는 암세포를 파괴하기 위해 사용한다. 구강 궤양, 타액 분비 감소, 피부 소양감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 항암제 치료 : 종양세포를 죽이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항암제들이 사용된다. 사용되는 약물에 따라 면역력 감소, 오심, 구토, 식욕감소, 구강 궤양, 탈모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

<출처 : 건강길라잡이>